

중·고령자의 은퇴유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
가족관계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Typology of Retirement on Depression of the Aging and Aged People: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 of Satisfaction with Family Relationship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이승원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김동배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이주연

Institute of Social Welfare Research, Yonsei University
Researcher : Seung-won Lee
School of Social Welfare, Yonsei University
Professor : Dong-bae Kim
Institute of Social Welfare Research, Yonsei University
Researcher : Joo-yeun Lee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 II. 선행연구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Aim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The first is to find out the level of depression according to the types of retirement. The second is to divide the level of satisfaction within a family into two types, satisfaction with children and satisfaction with conjugal relations, and then to examine whether they have any modulating effect on the

* 주저자 : 이승원 (seungwon3316@yonsei.ac.kr)

** 교신저자 : 김동배 (eagle207@yonsei.ac.kr)

depression after retirement. The third is to find out ways of social welfare program that can successfully intervene in solving the depression problems retired people may have.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types of retirement are divided into three groups: voluntary retirement, reluctant retirement and retirement due to age limit. People who choose a voluntary retirement have the lowest level of depression. Second, only the level of satisfaction they get from their children has an influence on the level of depression. The results suggest that differentiated ways of intervention are needed according to the types of retirement. Especially, there is a greater need to focus on the reluctantly retired group. In case of reluctant retirement, programs should be provided in order to increase the level of satisfaction they get from the children.

Key Words : 자발적 은퇴(voluntary retirement), 미자발적 은퇴(reluctant retirement), 정년퇴직(retirement due to age limit), 우울(depression), 가족관계만족도(level of satisfaction with family relations)

I. 서론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3%에 달하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향후에도 빠른 속도로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된 문제들 중 산업구조의 변화와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한 은퇴문제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전반적인 은퇴연령의 감소와 조기은퇴율의 증가는 은퇴자의 대상을 중·장년층으로까지 확대하였다(김지경, 2005). 특히 일반 기업의 평균 정년이 55세에 미만으로 낮아진 데 비해 평균수명은 향후 계속 늘어 퇴직 후 생활이 25년 이상으로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김지경, 2005; 이가옥·이지영, 2005).

은퇴경험이 개인에게 과거의 삶보다 더 가치 있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도전의 기회인지, 아니면 심각한 경제·심리적 문제를 초래하는 위기의 시기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한다(한희자·강은실·백설향, 2002). 은퇴가 은퇴자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

다는 해외의 연구들이 있는 반면(Atchley, 1977), 은퇴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에 대해 보고하고 있는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김애순·윤진, 1995; 윤현숙, 2006; 정경희 외, 2005). 우리나라는 은퇴로 인한 위험요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은퇴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클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은퇴 후 삶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은퇴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우울증은 은퇴 후 가장 일반적인 정신 질환 중 하나이며(김미혜 외, 2004), 만성적 질병이 있는 경우 흔하게 동반되는 질병이기도 하다(노병일·모선희, 2007). 또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은퇴가 우울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김애순·윤진, 1995; Kuypers & Bengtson, 1973; Higginbottom, Barling & Kelloway, 1993; Quick & Moen, 1998).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은퇴를 은퇴사유에 따라 자발적 은퇴, 미자발적 은퇴, 정년퇴직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은퇴유형에 따른

은퇴자의 우울문제를 연구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은퇴 관련 연구들에서는 은퇴의 유형을 다양하게 고려하지 못하였고, 이 관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은퇴를 하게 되면 개인의 주된 생활 영역이 직장에서 가정으로 이동함에 따라 은퇴후의 적응에 있어 가족집단이 많은 연관성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Elwell과 Malt-bie-Crannell (1981)는 은퇴로 인해 사회적 관계가 축소되면서 친구관계망이 감소하고, 이러한 현상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족지지망이 더욱 중요해진다고 하였으며, 국내 연구에서도 김태현(1981), 김정현(1991) 등이 은퇴 노인의 가족관계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참고해 볼 때, 은퇴와 관련된 연구를 함에 있어, 은퇴 후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되는 가족관련 변수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은퇴로 인해 야기된 우울문제의 보호요인으로서 가족관계만족도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가족관계와 심리·정서적인 문제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은 다수 존재하지만, 은퇴로부터 야기된 우울의 보호요인으로서의 가족관계만족도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노인인구의 급증과 함께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은퇴자들과 그들이 겪게 될 정신건강 상의 문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시점에서, 가족관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고령자의 은퇴유형에 따른 우울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다.

둘째, 가족관계만족도가 중·고령자의 은퇴와 우울의 관계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살펴본다.

셋째,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고령 은퇴자

의 우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은퇴의 개념 및 유형

일반적으로 은퇴는 경제활동을 완전히 그만둔 상태를 의미하며, 경제활동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 상태에서부터 노동시간의 단축, 주요 직업 중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권문일, 1996; 박경숙, 2003). 은퇴는 공식적으로는 일에서 물러나는 사건임과 동시에, 은퇴자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은퇴 후의 적응까지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최신덕·김모란, 1983). Atchley(1976)는 은퇴를 임금이 삭감된 상태에서 고용되거나, 개인의 수입이 이전 직업을 통해 얻어진 은퇴연금에 의존되어 있는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지경(2005)은 은퇴를 경제활동을 그만둔 상태로 보고, 일정 연령이 지난 사람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거나,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은퇴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정의에서 사용된 은퇴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을 김지경(2005)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고 각각의 기준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은퇴여부의 판단 기준은 연령으로서, 은퇴와 관련된 연구에서 가장 빈번하게 적용된다. 연령이 은퇴자와 비은퇴자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된 근거는 관련법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서는 60세 이상을 고령자로 규정하여 경로연금 수혜자격을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의 자활대상자는 60세 이하로 정해져 있으며, 고용보험법에서는 고용보험피보험자를 64세 이하로 정하였지만, 60세 이상 재취업자는 제외하고 있다. 이와 같

이 관련법에 근거하여 연령만을 고려하여 은퇴자를 정의할 경우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노인이 은퇴자로 간주되어 은퇴자의 수가 과대 추정될 수 있다. 두 번째 판단기준은 연금수급여부이다. 공적연금이나 사적연금을 최초로 수급하는 시점을 은퇴시기로 정의하는 것으로, 공적연금의 도입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연금 수급 대상자나 수급 수준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개인연금도 늦게 도입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은퇴를 판단할 경우 은퇴자의 수가 과소추정 될 수밖에 없다. 세 번째로 경제활동참가여부를 기준으로 은퇴 여부를 판단하기도 한다. 연령과 더불어 취업상태를 고려한 성영애(1994)의 연구에서는 가구주의 연령이 55세 이상이면서 미취업상태에 있는 가구를 은퇴가구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기준은 연령과 취업여부를 함께 고려했다는 점에서 연령이나 연금수급여부 중 하나의 기준만을 고려한 것보다 더 발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은퇴 이후 새롭게 재취업한 노인비정규직 종사자가 적지 않으며, 생애 미취업자나 지속적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는 취업경험이 없으므로 은퇴자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은퇴 여부를 판단하는 데 혼란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시간이나 임금수준이 일정수준 이하로 급격하게 축소된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연간 1,000 시간 미만 노동하는 사람 혹은 주당 30 시간 미만 일하는 사람을 은퇴자로 정의하는 것이다. 이러한 은퇴의 정의는 노동시장 경험과 현재의 경제활동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발전적이지만, 연령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이와 같이 은퇴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양하며, 각각의 장·단점들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은퇴를 정의하는 방법도 다양하다. 권문일(1996)의 경우 은퇴를 정의하는 방법을 응

답자의 주관적 평가에 의존하는 정의, 경제활동참가여부에 따른 정의, 노동시간이나 임금수준에 따른 정의, 주요직업 중단과 관련된 정의, 연금수급에 따른 정의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또한, 장지연과 호정화(2002)는 은퇴를 정의하는 방법을 크게 객관적인 방법과 주관적인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먼저 객관적인 방법의 경우, 일정한 연령이 지난 개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을 때 은퇴하였다고 판단하거나, 혹은 연금을 받고 있을 경우 은퇴자라고 정의하는 방법을 말한다(Kim & Moen, 2002). 많은 연구들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주관적인 방법은 개인에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그 응답을 기준으로 은퇴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윤현숙, 2006; Drentea, 2002; Warr et al., 2004).

본 연구를 위해 자료를 제공받은 2006년 한국노동연구원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 은퇴의 정의는 취업, 주관적 평가 등 다양한 차원을 반영하고 있다. 이 조사에서는 은퇴를 “본격적인 소득활동을 그만 두고 지금은 일을 하지 않고 있거나, 소일거리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 경우, 또한 앞으로도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소일거리 정도의 일 이외의 일을 할 의사가 없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이 같은 개념에는 연금수급여부나 사회보장지원비 수급여부가 고려되지 않았지만,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와 현재의 주된 경제활동참가여부 그리고 노동시장에서의 경험이 반영된 가장 적절한 정의로 평가할 수 있겠다(김지경, 2005).

한편, 모든 은퇴를 하나의 유형으로만 설명할 수 없으며, 은퇴의 사유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은퇴 후 심리적 적용에 차이가 있다(George & Lucille, 1980; 김애순·윤진, 1995; 김지경, 2005)는 사실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는 은퇴를 은퇴 사유에 따라 자발

적 은퇴와 비자발적 은퇴로 나누고 (George & Lucille, 1980; Matthews & Brown, 1987; 김애순·윤진, 1995, 김지경, 2005), 개인의 경제적 여건이 허락하거나 노동시장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가진 은퇴를 자발적 은퇴로, 시장의 유연성과 경쟁법칙에 따라 개인이 미리 대비하지 못한 은퇴를 비자발적 은퇴로 구분하였다. 그런데 다양한 사유에 의해 경험하게 되는 은퇴를 자발적인 것과 비자발적인 것 등 두 가지 유형으로만 분류할 경우,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는 은퇴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발적 은퇴와 비자발적 은퇴 이외에 정년퇴직이라는 유형을 추가하였다. 정해진 연령에 이르러 은퇴하게 되는 정년퇴직의 경우 자발적 은퇴나 비자발적 은퇴의 범주에 포함시키기 어렵다. 기존의 연구 중 정년퇴직을 비자발적 은퇴로 구분 짓는 연구가 있으나(장지연, 2003), 정년퇴직의 경우 개인이 미리 은퇴를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준비가 거의 불가능한 비자발적 은퇴와 구분되어야 한다. 은퇴 후 적응양상이 준비 및 계획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Glamser, 1981; 김효정·고선규·권정혜, 2007; 최성재, 1989; 한혜경, 2003)와, 비자발적 은퇴인지 정년퇴직인지에 따라 이후의 심리적인 문제에 있어 차이를 가진다는 연구결과들(이정원, 2006; 박경숙, 2001)은 이 두 가지 유형을 각각 분리해서 보아야 한다는 근거를 제시해 준다. 또한 계속해서 직장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개인적 욕구를 가진 정년퇴직자의 경우, 자발적 은퇴에 포함시키기 어렵다. 이처럼 정년퇴직은 비자발적 은퇴와 자발적 은퇴에 포함될 수 없는 독립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2. 은퇴와 우울의 관계

개인의 심리·사회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직업은 인생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업을 잃어버리게 되는 시점을 뜻하는 은퇴는 은퇴자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은퇴로 인한 사회와 가정에서의 역할상실은 은퇴자 스스로를 무능력하다고 평가하게 만들며, 이러한 평가는 자존감의 약화로 이어져 결국, 심리·사회적 적응에 곤란을 겪게 할 수 있다(Kuypers & Bengtson, 1973; Higginbottom, Barling & Kelloway, 1993; Quick & Moen, 1998; McPherson, 1983) 또한 역할이론(role theory)에 의하면, 은퇴는 경제활동을 중단함으로써 역할상실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역할의 상실은 역할이 부여하는 자아정체감의 상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개인의 심리적 안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국내 연구의 경우에도 은퇴가 은퇴자의 심리적인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들이 있다. 김애순·윤진(1995)은 은퇴와 심리적 안녕의 관계에 대해 은퇴가 수입의 감소와 역할 상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심리적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 그것은 우울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설명하였다. 윤현숙(2006)은 은퇴로의 진입이 심리적 안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은퇴를 한 노인이 은퇴를 하지 않은 노인에 비해 심리적으로 더 불안한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가정했다. 이는 은퇴 이후 친족과의 만남 이외에는 생활에 즐거움을 주는 여가활동이 거의 없으며(정경희 외, 2005), 경제활동의 중단인 은퇴가 개인에게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모든 은퇴자들에게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은

퇴를 새로운 삶의 기회로 보고 과중한 업무들로 인해 하지 못하였던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시기로 받아들이는 은퇴자에게는 은퇴가 심리적인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은퇴가 심리적인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고한 서구의 연구들은, 전반적으로 은퇴한 노인들은 은퇴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정년이 빠르지 않을 뿐 아니라 개인들 스스로 젊은 시절부터 은퇴 후의 생활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고 무엇보다도 연금제도 등의 노인 복지정책의 수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은퇴 후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Atchley, 1977). 연속이론(continuity theory)에 의하면, 개인은 행동과 사고, 생활양식의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은퇴가 반드시 부적응과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Atchley & Barusch, 2004). 또한 Drentea(2002)는 은퇴자는 비은퇴자에 비해 자기통제감(sense of control)은 낮지만 심리적 불안(anxiety)이나 스트레스를 덜 느끼고 있으며, 우울증은 두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Friedman과 Orbach(1974)는 은퇴를 위기상황으로 보는 것은 편견이라고 지적하면서 은퇴가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 영향력을 암시하였다. 이와 같이 기존의 연구들은 은퇴의 영향력에 대해 일관되지 못한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한편, 은퇴의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정도의 스트레스와 우울 증세를 유발한다는 사실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은퇴 유형에 따른 심리적 영향의 차이에 대한 연구는 은퇴 사유에 따라 자발적 은퇴와 비자발적 은퇴를 비교한 것이 대부분이다. 대개의 연구에서는 자발적 은퇴보다 비자발적 은퇴가 개인의 스트레스를 더욱 많이 유발하고 우울 증

상에도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George와 Lucille(1980)은 개인의 일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을 때, 강제 은퇴는 매우 절망적인 것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Kimmel, Price와 Walker(1978)는 직업이나 일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을 때의 은퇴는 낮은 생활만족도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Matthews와 Brown(1987)의 연구에서는 자발적 은퇴를 한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정서적인 만족감이나 자기유용감 측면에서 비자발적 은퇴를 한 사람에 비해 전반적으로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의 경우, 김애순·윤진(1995)은 은퇴상황이 자발적인가 아닌가에 따라 개인이 받는 스트레스의 정도가 달라지며, 은퇴 이후의 적응수준도 달라진다고 보고했는데,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비자발적으로 은퇴를 했을 경우, 자발적 의사에 따른 은퇴보다 스트레스의 정도가 더 높고 정서적 만족도나 자아만족감 수준이 낮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또한 김지경(2005)은 비자발적 혹은 강제적으로 은퇴를 경험한 사람의 경우 역할상실감, 경제적 어려움, 일에 대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투입의 좌절 등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발적 은퇴를 한 사람보다 은퇴 후 생활과 심리적 적응에 어려움을 더 많이 겪는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일정 연령에 이르러서 은퇴를 하게 되는 정년퇴직의 심리적 영향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박경숙(2001)은 정년퇴직의 경우 비자발적 은퇴보다 심리적 부담감이 적으며, 그 이유는 정년퇴직이 노동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하기 보다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유동성 있는 은퇴의 일종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한편, 이정원(2006)은 정년퇴직 이후 경제적 수준에 따라 심리적 변화가 다르게 나타나

는데, 경제적으로 대비가 가능한 정년퇴직의 경우 은퇴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준비가 불가능한 비자발적 은퇴에 비해서 스트레스나 심리적 변화가 덜 하다고 설명한다.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 은퇴유형에 따라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 스트레스와 우울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은퇴자의 우울문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은퇴 유형을 고려하는 것은 은퇴자의 우울에 보다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3. 가족관계만족도와 우울의 관계

가족은 개개인의 1차적 보호망이며, 생활영역인 동시에 사회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라 할 수 있다. 시대에 따라 가족에 대한 가치관과 형태는 계속적으로 변화되어 왔지만 가족의 의미와 중요성은 끊임없이 강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가족의 유대감이 과거에 비하여 많이 약화된 편이지만 여전히 가족은 개인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양현주, 2005).

가족관계는 구성원에 따라 크게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형제관계로 구분할 수 있다(양옥경·이민영, 2003).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의 가족형태가 핵가족화 되었음을 고려하여(양현주, 2005), 가족관계에 대한 연구를 부부관계와 자녀관계를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한편, 가족관계와 우울을 비롯한 정신건강과 삶의 질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오랜 시간동안 많은 연구자들을 통해 다루어져 왔으며, 대부분의 연구에서 가족관계가 정신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을 보고하고 있다(Johnson, 1978; Quinn, 1983).

국내 연구의 경우, 김영범(2004)은 노년기의

가족생활에 있어 자녀와 더불어 부부중심의 가족관계망을 가진 노인이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김홍기(1996)의 연구에서는 가족응집력이 낮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옥수(1997)는 가족의 기능이 낮을수록 노인들은 더 많이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신효식과 서병숙(1994)은 노년기에는 질병과 같은 신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은퇴와 더불어 경험하게 되는 경제적 불안정, 사회적 지원의 미비, 사별 등으로 인해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노인의 가족관계만족도는 노인의 우울을 완충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한편, 은퇴를 경험하게 될 경우 경제활동을 통해 가질 수 있었던 사회적 활동이 사라지면서, 개인의 생활반경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된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은퇴를 하게 될 경우 사회활동이 감소하게 되고, 이에 따라 생활반경이 가족으로 좁혀지게 되며, 생활범위가 좁아진 은퇴자들은 그 관심과 접촉영역이 가족, 특히 자녀와 부부에게로 집중되게 된다. 따라서 은퇴자에게 있어 가족관계는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며, 은퇴 후에는 가족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게 된다(김정현, 1995). 이와 관련하여, Elwell과 Malt-bie-Crannell (1981)은 은퇴로 인해 사회적 관계가 축소되면서 의무적으로 형성되었던 친구관계망이 감소하고, 이러한 현상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족지지망이 더욱 중요해진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가족은 은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여 지역적 조직과 기구 등 각종 사회활동에 은퇴자를 참여시킴으로써 은퇴자의 소외감, 절망감 및 실패감을 감소시켜 줄 수 있으므로(김태현, 1981), 은퇴 이후의 스트레스나 소외감 등의 심리적인 문제에 가족관계가 완충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가족중심적인 가치관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가족관계는 서구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더욱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자녀관계만족도와 부부관계만족도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자녀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강인, 2003; 신효식·서병숙, 1994; 한혜경, 2003), 이를 유교문화를 바탕으로 한 자녀중심의 가족문화로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서구와는 달리 자녀중심의 가족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녀가 성공하고 자녀와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을 인생의 중요한 성공지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관계가 정신건강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한편,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선행연구들도 다수 존재한다(김경신·김정란, 2001; 김정현, 1995; 신화용·조병은, 1999; 김효심·신효식, 1995). 이상의 논의를 통해 자녀관계와 부부관계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일치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중·고령 은퇴자들의 우울에 자녀관계와 부부관계가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확인해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 본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은퇴로 인해 사회관계가 좁아진 은퇴자들에게 가족관계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가족관계만족도는 중요한 자원의 하나으로써 은퇴한 중·고령자들의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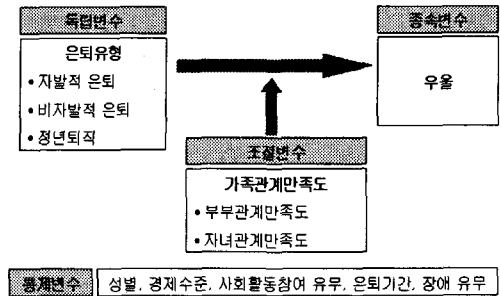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은퇴유형별로 우울정도에 어

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가족관계만족도가 은퇴유형과 우울 사이에서 완충효과를 가지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2. 측정도구

1) 독립변수: 은퇴유형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은퇴 사유에 따라 분류된 은퇴유형이다. 은퇴유형은 자발적 은퇴, 비자발적 은퇴, 정년퇴직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 사용된 한국노동연구원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제1차 기본조사에서는 은퇴사유를 11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1가지 은퇴사유 중 은퇴를 해도 '수입이 충분해서, 배우자의 수입이 충분해서, 일하기가 싫어서, 더 많은 여가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사회봉사/취미활동을 하려고'를 선택한 경우에는 자발적인 은퇴로, '본인의 건강이 나빠져서, 배우자의 건강이 나빠져서, 다른 가족의 건강이 나빠져서, 가사 및 육아 때문에,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서'를 비자발적인 은퇴로, '정년퇴직으로'를 선택한 경우에는 정년퇴직으로 분류하였다. 은퇴유형이 명목변수이므로 비자발적인 은퇴집단을 준거집단(reference group)으로 하는, 더미변수(dummy variables)로 구성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종속변수: 우울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설정된 우울은 “지난 일주일간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것들이 귀찮고 괴롭게 느껴졌습니까, 지난 일주일간 무슨 일을 하든 정신을 집중하기 힘들었습니까, 지난 일주일간 많이 우울했다고 느끼셨습니까” 등 우울수준을 묻는 10문항으로 측정되었다. 각 항목은 4점 리커트 척도로,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거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음”에 1점,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음”에 2점, “자주 그런 생각이 들었음”에 3점,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음”에 4점을 부여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우울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737 이었다.

3) 조절변수: 가족관계만족도

조절변수인 가족관계만족도는 부부관계만족도와 자녀관계만족도로 구성된다. 이러한 구성은 부부관계와 자녀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선행연구들(Morgan, 1976; 서병숙, 1989)과 가족의 형태가 핵가족화 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는 부부관계만족도와 자녀관계만족도를 동년배와 비교해 보았을 때 자신이 부부관계와 가족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측정하였다. 척도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팀에서 미국과의 비교연구를 위해 미국의 HRS¹⁾(Health and Retirement Survey)를 참고로 하여 만든 것으로, 0점에서 100점까지 10점 간격으로 만들어진 척도로 점수가 100점에 가까울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4) 통제변수: 성별, 장애 유무, 경제수준, 사회활동참여 유무, 은퇴기간

본 연구는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요인들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설정된 통제변수는 성별, 장애 유무, 경제수준, 사회활동참여 유무, 은퇴기간이다. 성별의 경우 여자를 ‘0’, 남자를 ‘1’로 하였으며, 장애 유무의 경우 의사에게 장애판정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를 ‘0’, 장애판정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를 ‘1’로 하여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사회활동참여 유무는 자원봉사, 친목모임(계모임, 노인정 등), 여가/문화/스포츠 관련단체에 대한 참여 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중 하나라도 참여할 경우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하나도 참여하지 않는 경우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경제수준은 동거 가족의 총 월수입을 통해 측정하였다. 이는 조사대상자가 은퇴자임을 고려할 때, 고정된 수입이 없거나 적을 것이며, 경제적으로 가족에게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고려한 것이다. 은퇴기간은 은퇴 후 경과기간이 은퇴자의 심리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한희자, 2002; 한혜경, 2003).

3. 조사 대상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2006)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제1차 기본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기초연구는 2005년부터 진행되었으며, 제1차 기본조사는 2006년 8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되었다. 먼저 지역의 층 구분은 15개 특·광역시와 특별로 동부와 읍면부로 층화하고, 또한

1) HRS는 199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은퇴 전후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고용상태와 소득, 자산 현황, 소비형태, 개인의 은퇴결정, 사회보장제도의 효과 등을 은퇴 이전부터 포착할 수 있는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조사주기는 2년이며, 조사대상은 50세 이상으로 하고 있다(한국노동연구원, 2007).

지역층 내에서는 아파트지역과 일반주택지역으로 다시 층화하였다. 표본조사구의 할당은 우선 시·도별로 15개를 할당하고 나머지는 인구수에 비례하도록 할당하였다. 15개 시·도별로 15개 조사구를 우선 할당한 이유는 인구수가 적은 시·도에서도 신뢰성 있는 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배분하기 위함이다. 시·도별/동부와 읍면부별로 할당된 조사구의 주거형태별 배분은 조사구수를 기준으로 비례배분법을 원칙으로 적용하였다.

제1차 기본조사의 주요내용은 인구, 가족, 건강, 고용, 소득, 자산, 주관적 기대감 및 삶의 만족도 등 7개 영역이다. 조사대상은 45세 이상의 국민으로 제주도 및 도서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6,171개 가구에 거주하는 10,254명을 패널로 구축하고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연령을 50세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1960년대부터 은퇴연령이 50대 중반으로 낮아졌고, 최근에는 그 이전에 조기은퇴를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

〈표 1〉 조사대상자의 특성

특성	구분	빈도	%
성별	남성	551	67.8
	여성	262	32.2
연령	50세이상 59세 미만	182	23.5
	60세이상 69세 미만	366	47.2
	70세이상 79세 미만	206	26.5
	80세이상	22	2.8
	100만원 미만	174	21.4
경제수준 (가족총월수입)	100만원이상 500만원 미만	178	21.9
	500만원이상 1000만원 미만	98	12.1
	1000만원이상 1500만원 미만	77	9.5
	1500만원이상 2000만원 미만	82	10.1
	2000만원이상 2500만원 미만	62	7.6
	2500만원이상	142	17.5
	은퇴기간	1년미만	0
1년이상 2년 미만		93	11.4
2년이상 3년 미만		85	10.5
3년이상 4년 미만		105	12.9
4년이상 5년 미만		71	8.7
5년이상 6년 미만		75	9.2
6년이상 7년 미만		78	9.6
7년이상 8년 미만		70	8.6
8년이상 9년 미만		73	9.0
9년이상 10년 미만		53	6.5
은퇴유형	10년	110	13.5
	자발적 은퇴	111	15.1
	비자발적 은퇴	400	54.5
	정년퇴직	223	30.4
사회활동참여 유무	유	492	60.5
	무	321	39.5
장애 유무	유	103	12.7
	무	710	87.3

기를 고려하여 50세 이상을 은퇴에 관한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은퇴 관련 연구에서 대상자의 연령을 50세 이상으로 설정하는 경우는 많이 있다 (김지경, 2005; 손용진, 2005; 한혜경, 2003). 또한, 자녀와 배우자가 모두 있는 은퇴자만을 선별하였으며, 은퇴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짐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오류를 제거하고자 대상자의 은퇴 후 경과기간을 10년까지로 제한하였다. 결과적으로 813명이 최종적인 분석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SPSS 12.0을 사용하여 우울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분석을 실시했고,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족관계만족도의 실태, 우울의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를 사용하였다. 또한, 주요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은퇴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자녀관계만족도 및 부부관계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자의 특성에는 성별, 연령, 경제수준, 사회참여 여부, 은퇴기간, 장애 유무, 은퇴유형이 포함되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성별분포는 남성이 67.8%로 여성의 두배 정도였다. 연령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나타냈으며, 경제수준도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은퇴기간의 경우 4년 미만인 경우가 1/3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은퇴유형은 비자발적 은퇴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조사대상자는 60.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활동참여가 비교적 활발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장애 유무의 경우 장애가 없는 조사대상자가 87.3%로 장애를 가진 조사대상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은퇴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퇴유형별 분석)

구분	model 1			model 2			
	B(S.E)	β	Sig.	B(S.E)	β	Sig.	
(상수)	17.390(.503)			17.528(.499)			
통제변수	성별	-.506(.310)	-.056	.103	-.145(.326)	-.016	.657
	경제수준	-.202(.066)	-.103	.002**	-.158(.066)	-.081	.016*
	사회참여 유무	-1.707(.294)	-.197	.000***	-1.542(.291)	-.178	.000***
	은퇴기간	.059(.048)	-.042	.217	.069(.047)	.049	.143
	장애 유무	2.159(.437)	.169	.000***	1.779(.437)	.140	.000***
독립변수	자발적 은퇴 ²⁾			-1.838(.426)	-1.49	.000***	
	정년퇴직 ³⁾			-1.477(.350)	-1.55	.000***	
R ²		.097		.129			
Adjusted R ²		.091		.121			
F(Sig)		17.327***		16.469***			
R ² Change				.032			

* : p<.05, ** : p<.01, *** : p<.001

2) '비자발적 은퇴'를 준거집단(reference group)으로 설정하였다.(비자발적 은퇴=0, 자발적 은퇴=1)

3) (비자발적 은퇴=0, 정년퇴직=1)

2. 은퇴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퇴 유형별 분석)

은퇴유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은퇴유형(자발적 은퇴, 비자발적 은퇴, 정년퇴직)을 독립변수로, 우울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들간의 다중공산성 여부를 분석한 결과,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관계수는 최대값이 .563인 것으로 나타나 독립변수들간 다중공산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에서 보듯 먼저 통제변수로만 구성된 모델1의 설명력은 9.7%이고,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통제변수로 설정한 변수들 가운데 경제수준($\beta = .103$), 사회활동참여 유무($\beta = .197$), 장애 유무($\beta = .169$)가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2는 통제변수와 은퇴유형변수를 함께 투입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모델 설명력은 12.9%로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모델설명력의 경우 통제변수만을 투입한 모델1보다 은퇴유형변수를 함께 투입한 모델2에서 설명력이 증가했다. 모델2에서 은퇴유형별로 우울정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각 유형별로 우울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유형에서 자발적 은퇴집단($\beta = -.149$)이 준거집단인 비자발적 은퇴집단과 비교하여 $p < .001$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우울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자발적 은퇴집단과 정년퇴직 집단 사이에 우울이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준거집단인 비자발적 은퇴집단보다 정년퇴직 집단($\beta = -.155$)의 우울수준이 더 낮다. 즉, 준거집단인 비자발적 은퇴집단의 우울이 가장 높은 것이다. 이는 비자발적 은퇴자의 경우에 더 심각한 심리적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Mathews & Brown, 1987; 김지경, 2005)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비

자발적 은퇴의 경우, 은퇴 후 생활에 대한 준비가 가능한 자발적 은퇴나 정년퇴직과는 다르게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힘들기 때문에 판단된다. 은퇴연령의 감소와 노동시장 유연화 등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비자발적 은퇴가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비자발적 은퇴를 경험한 은퇴자들의 우울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설정된 통제변수 중 장애 유무와 사회활동참여 유무가 은퇴자의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비자발적 은퇴를 경험한 은퇴자들의 심각한 우울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장애를 가진 은퇴자들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과, 은퇴자들에게 사회활동참여를 권장하는 것이 은퇴로 인한 우울을 줄이는데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한편, 은퇴기간의 경우 중·고령자의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퇴기간이 은퇴자의 심리·정서적인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들(한희자, 2002; 한혜경, 2003)과 상반되는 결과이다. 은퇴기간이 은퇴자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하며, 앞으로 은퇴기간에 따른 은퇴자의 우울과 관련된 더 많은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3. 가족관계만족도의 조절효과

본 연구에서는 은퇴유형에 따른 우울정도의 차이에 대한 가족관계만족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Baron과 Kenny(1986)는 조절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독립변수, 종속변수, 조절변수를 포함한 조절회귀분석의 사용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은 몇 단계의 회귀방정식을 이용하여 독립변수와 조절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통제한 다음,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곱으로 이뤄진 상호작용항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근거하여 1단계에서는 통제변수,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의 각 항목과 조절변수의 각 항목을 곱하여 만든 상호작용항변수를 투입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호작용항변수를 투입하기 전인 모델 1을 보면, 모델의 전체 설명력은 20.5% 로,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종속변수인 우울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조절변수인 자녀관계만족도($\beta = -.115$)와 부부관계만족도($\beta = -.204$)가 유의미했다. 통제변수 중에는 사회활동참여 유무($\beta = -.152$)와 장애 유무($\beta = .125$)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독립변수인 은퇴유형변수에서 은퇴유형별로 우울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유형에서 자발적 은퇴집단($\beta = -.134$)이 준거집단인 비자발적 은퇴집단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우울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자발적 은퇴집단과 정년퇴직 집단($\beta = -.135$) 사이에 우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준거집단인 비자발적 은퇴집단보다 정년퇴직집단의 우울수준이 더 낮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상호작용항변수를 투입한 모델2의 전체 설명력은 21.1%이고,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항변수를 투입하지 않은 모델1보다 상호작용항변수를 함께 투입한 모델2에서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통제변수인 장애 유무($\beta = .127$)와 사회활동참여 유무($\beta = -.154$), 조절변수인 부부관계만

〈표 3〉 가족관계만족도의 조절효과

구분	model 1			model 2			
	B(S.E)	β	Sig.	B(S.E)	β	Sig.	
(상수)	17.003(.488)			17.036(.489)			
통제변수	성별	.075(.319)	.008	.814	.036(.319)	.004	.910
	경제수준	-.078(.063)	-.040	.218	-.067(.064)	-.035	.290
	사회참여 유무	-1.315(.280)	-.152	.000***	-1.334(.280)	-.154	.000***
	은퇴기간	.067(.045)	.047	.141	.065(.045)	.046	.153
	장애 유무	1.588(.418)	.125	.000***	1.618(.418)	.127	.000***
독립변수	자발적 은퇴(A)	-1.659(.408)	-.134	.000***	-1.717(.433)	-.139	.000***
	정년퇴직(B)	-1.286(.335)	-.135	.000***	-1.383(.340)	-.146	.000***
조절변수	자녀관계만족도(C)	-.026(.009)	-.115	.003**	-.040(.011)	-.177	.000***
	부부관계만족도(D)	-.041(.008)	-.204	.000***	-.036(.010)	-.180	.000***
상호작용 항변수	A*C			.019(.028)	.029	.495	
	A*D			-.010(.023)	-.018	.672	
	B*C			.049(.021)	.106	.019*	
	B*D			-.013(.018)	-.032	.482	
R ²		.205			.211		
Adjusted R ²		.196			.198		
F(Sig)		23.039***			16.469***		
R ² Change					.006		

* : $p < .05$, ** : $p < .01$, *** : $p < .001$

족도($\beta = -.180$)와 자녀관계만족도($\beta = -.177$)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종속변수인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립변수인 은퇴유형변수에서 각 유형별로 우울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은퇴유형에서 자발적 은퇴집단($\beta = -.139$)과 정년퇴직집단($\beta = -.146$)이 준거집단인 비자발적 은퇴집단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우울정도가 낮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상호작용항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p < .05$ 수준에서 정년퇴직다미변수와 자녀관계만족도변수를 곱한 상호작용항변수($\beta = .106$)가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상호작용항변수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년퇴직집단보다 비자발적 은퇴집단의 우울수준이 더 높으며, 자녀관계만족도가 정년퇴직과 비자발적 은퇴에 의한 우울의 정도에 대한 조절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관계만족도가 높을 경우, 비자발적 우울수준이 낮아진다는 해석이 가능하며, 비자발적 은퇴를 경험하더라도 자녀관계만족도가 높을 때, 우울이 낮아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비자발적 은퇴를 경험한 중·고령자의 경우 자녀관계만족도가 우울 정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정신건강에 있어서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선행연구들(김경신·김정란, 2001; 김정현, 1995; 신화용·조병은, 1999; 김효심·신효식, 1995)과 상이한 결과이다. 이는 서구와 달리 우리나라는 자녀중심의 가족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성공적인 노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라 판단된다(김동배, 2008; 한혜경, 2003; 강인, 2003). 또한 은퇴 전에 직업이나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관계로 부부간

의 유대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지 못하였거나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완충작용을 나타내지 못한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 수 있다. 이들은 배우자보다는 자녀에게 본인의 노후를 의지할 경향이 높아 현실적으로 노부모-성인자녀 관계의 부적응을 야기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상할 수 있겠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과 같이 부부관계는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은퇴연령 저하와 평균수명 연장 등의 영향으로 은퇴 이후의 삶이 길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부부관계는 은퇴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은퇴자들, 특히 비자발적 은퇴자들이 올바른 부부관계를 형성하고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또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고령자의 은퇴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유형별로 파악해보고, 중·고령 은퇴자의 우울이 가족관계만족도에 의해 완충되는지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하여 한국노동연구원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제1차 기본조사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그 중 연구목적에 맞는 813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남성성이 여성의 두 배 정도이며, 연령분포와 경제수준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기간은 4년 미만이 1/3정도였으며, 은퇴유형은 비자발적 은퇴가 절반 이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조사대상자들의 사회활동 참여가 비교적 활발하였으며, 대부분 장애를 가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은퇴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유형별

로 살펴보기 위해 독립변수로 은퇴유형을, 종속변수로 우울을 설정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비자발적 은퇴를 경험한 경우에 우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의 경우 경제수준, 사회참여 유무, 장애 유무가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은퇴유형에 따른 우울의 차이에 대한 가족관계만족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비자발적 은퇴집단의 우울은 정년퇴직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관계만족도가 비자발적 은퇴집단의 우울에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상호작용항변수들은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다음의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은퇴준비를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은퇴를 준비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은퇴 후 생활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Glamsner, 1981; 김효정·고선규·권정혜, 2007; 최성재, 1989; 한혜경, 2003)들을 통해 은퇴준비프로그램의 중요성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은퇴의 유형이 다양함을 고려할 때, 서로 다른 은퇴를 경험하게 되더라도 효과적으로 은퇴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는 은퇴준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따라서 은퇴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은퇴준비 과정을 돕는 프로그램과 은퇴 후 생활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 등이 연계되어 비자발적 은퇴, 자발적 은퇴, 정년퇴직 등 다양한 은퇴유형을 포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연구 결과 자발적 은퇴집단 및 정년퇴직집단보다 비자발적 은퇴집단의 우울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은퇴자의 우울에 개입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에 비자발적

은퇴집단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비자발적 은퇴를 경험한 은퇴자들에 대한 추가적 지원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비자발적 은퇴집단의 수가 가장 많았으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비자발적 은퇴가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은퇴자의 우울과 관련된 프로그램 기획 시에 무게 중심을 비자발적 은퇴를 경험한 은퇴자들에게 두어야 하겠다. 이와 함께 비자발적 은퇴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발생하게 될 문제들을 예방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또한 비자발적 은퇴를 경험한 후에도 계속해서 일하기를 원하는 대상자를 위해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은퇴자 재취업 프로그램에 대한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비자발적 은퇴를 경험했는지라도 높은 자녀관계만족도가 우울을 낮추고, 은퇴 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은퇴자들, 특히 비자발적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우울 관리 프로그램에서 자녀관계향상 프로그램이나 자녀와의 의사소통 기술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상담프로그램, 또는 자녀와 함께 자원봉사 등의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은퇴연령이 감소하고 있으며, 은퇴 후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자녀들의 결혼 및 출가 이후의 부부관계는 은퇴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관계를 위한 프로그램과 함께 부부관계개선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진다면 은퇴자의 우울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정년 퇴직과 비자발적 은퇴를 비교했다는 점에서는 의미를 가지나, 정년퇴직의 특징이나 세부적인 유형까지는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정년퇴직의 세부유형에 대한 더욱 자세한 논의가 필요하겠다. 둘째, 본 연구는 양적연구를 통해 일반적인 경향성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은퇴 유형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들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위한 질적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가족관계만족도를 측정할 적도가 가족관계의 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이후에는 가족관계만족도에 대해 보다 다양한 측면이 고려된 척도를 사용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강인(2003). 성공적 노화의 지각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0(2), 95-116.
- 2) 권문일(1996). 노인의 은퇴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3) 김경신, 김정란(2001). 중년기 기혼여성의 자아정체감 및 위기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4), 105-118.
- 4) 김동배(2008).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 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0(1), 211-231.
- 5) 김미혜, 신경림, 강미선, 강인(2004).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후에 대한경험. 한국노년학 24(2), 79-95.
- 6) 김애순, 윤진(1995). 은퇴 이후의 심리·사회적 영향. 한국노년학 15(1), 141-158.
- 7) 김옥수(1997). 외로움의 개념 분석. 간호과학 9(2), 28-37.
- 8) 김영범(2004). 노인의 사회 관계망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 비혈연집단을 중심으로. 한국 노년학 26(2), 261-273.
- 9) 김영자(2007).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을 통한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 프로그램이용 및 참여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0) 김정현(1995). 가족지지가 남자노인의 은퇴스트레스와 은퇴 후 적응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상위직종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1) 김지경(2005). 성별 은퇴사유와 은퇴 후 소득 비교. 한국사회보장학회 21(2), 55-76.
- 12) 김태현(1981). 한국에 있어서의 노인 부양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3) 김홍기(1996). 임상행동의학(우울증)1 : 가족응집력, 결속력과 우울,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자살 충동에 미치는 영향. 가정의학회지 17(11), 81-89.
- 14) 김효심, 신효식(1995). 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관한 일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3), 66-73.
- 15) 김효정, 고선규, 권정혜(2007). 남자노인의 은퇴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 : 결혼만족도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192-193.
- 16) 한국노동연구원(2006).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표본설계.
- 17) 한국노동연구원(2007).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유저가이드.
- 18) 노병일, 모선희(2007). 사회적 지지의 수준과 차원이 노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7(1), 53-69.
- 19) 동아일보, 2007년 11월 13일자.
- 20) 박경숙(2001). 중장년기 종사상 지위와 은퇴 과정의 다양성. 한국노동경제학회 24(1), 177-205.

- 21) 박경숙(2003). 55세 이상 고령자의 노동시장 이탈 과정 : 은퇴와 유형화에 대한 함의.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 연구 3(1), 103-140.
- 22) 박선희(2005). 노인이 지각하는 가족관계가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3) 서병숙(1989). 노후 적응에 관한 연구 - 생활만족도 및 가족의 교류도를 중심으로. 동국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4) 성영애(1994). 미국 은퇴가계의 경제적 복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4), 31-43.
- 25) 손용진(2005). 은퇴 및 비은퇴 집단에 있어서 주관적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30, 75-98.
- 26) 신영길(2001). 부부의 종교활동 참여가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연구. 목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7) 신화용, 조병은(1999). 남편이 은퇴한 부인의 역할수행과 결혼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5(4), 283-293.
- 28) 신화용, 조병은(2004). 남편이 은퇴한 부부의 자원과 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9(1), 39-51.
- 29) 신효식, 서병숙(1994). 노부의 성신자녀와의 결속도, 자아존중감, 심리적 손상 간의 인과 모형. 한국노년학 14(2), 121-132.
- 30) 양옥경, 이민영(2003). 가족관계척도 활용을 위한 타당도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4, 5-33.
- 31) 양현주(2005). 중년기 전업주부의 생성감과 가족관계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사회활동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2) 유영주(1984). 한국도시가족의 가족생활주기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 2(1), 111-129.
- 33) 윤현숙(2006). 은퇴가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적 연구 : 한국의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8(4), 197-217.
- 34) 이가옥, 이지영(2005). 남성 연소노인의 은퇴 후 적응과정과 노년기 조망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1), 93-120.
- 35) 이수연(1999). 부부의 가족주의 가치관 및 가족관계 만족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6) 이정원(2006). 정년은퇴 여부에 따른 경제적 격차와 정년은퇴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연구 30, 71-99.
- 37) 장지연, 호정화(2002). 취업자 평균 은퇴연령의 변화와 인구특성별 차이. 노동정책연구 2(2), 1-21.
- 38) 장지연, 호정화(2003). 정년제의 문제와 대안. 노인복지연구 19, 261-283.
- 39) 정경희, 오영희, 석재은, 도세록, 김찬우(2005). 2004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40) 최성재(1989). 퇴직 예정자의 퇴직에 대한 태도 및 퇴직 후 생활전망의 인식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창간호, 45-64.
- 41) 최신덕, 김모란(1983). 노년 사회학. 서울 : 경문사.
- 42) 한혜경(2003). 조기퇴직자의 우울감과 영향요인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1, 81-101.
- 43) 한희자, 강은실, 백설향(2002). 은퇴자의 은퇴 후 삶의 상태변화 예측요인. 노인간호학회지 4(2), 195-206.
- 44) Argyle, M.(1987). The Psychology of Happiness. London : Routledge.
- 45) Atchley, R. C.(1976). The Social Forces on Later Life(2nd ed). Belmont, California : Wadsworth Publishing Co. Inc. 1977.
- 46) Atchley, R. C. & Barusch, A. S.(2004).

- Social Forces and Aging(10th ed.). Belmont, CA : Wadsworth/Thomson Learning.
- 47) Baron, R. M. & Kenn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y research : conceptual, strategy,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48) Drentea, P.(2002). Retirement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Aging and Health* 14(2), 167-194.
- 49) Elwell, F., & Malt-bie-Crannell, A. D. (1981). The import of role loss upon coping resources and life satisfaction in the elderly. *Journal of Gerontology* 36, 223-232.
- 50) Friedman, E. A., & Orbach, H. L.(1974). Adjustment to retirement. In A. Silvano (Ed.). *American Handbook of Psychiatry* : 1. New York : Basic Books.
- 51) George, L. K., & Lucille, B. B.(1980). *Quality of Life in Older Persons : Meaning and Measurement*. New York : Human Sciences Press. Inc.
- 52) Glamser, D. F.(1981). The impact of preretirement programs on the retirement experiences. *Journal of Gerontology* 36(2), 244-250.
- 53) Higginbottom, S. F., Barling, J., & Kelloway, E. K.(1993). Linking retirement experiences and marital satisfaction. *Psychology and Aging* 8(4), 508-516.
- 54) Hsu, F. L.(1965). The effect of dominant kinship relationships on kin and nonkin behavior : A hypothesis. *American Anthropologist* 67, 638-661.
- 55) Johnson, L. S.(1978). Good relationships between older mothers and their daughters : A casual model. *The Gerontologist* 18, 301-306.
- 56) Kim, J. E., & Moen, P.(2002). Retirement transitions, gender, and psychological well-being : A life-course, ecological model. *Journal of Gerontology* 57B(3), 212-222.
- 57) Kimmel, D. C., Price, K. R., & Walker, J. W.(1978). Retirement choice and retirement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33, 575-585.
- 58) Kuypers, J. A, & Bengtson, V. L.(1973). Competence and social breakdown : A social-psychological view of aging. *Human Development* 16(2), 37-49.
- 59) Matthews, N. A., & Brown, K. H.(1987). Retirement as a critical life event. *Research on Aging* 9, 548-557.
- 60) McPherson, Barry D.(1983). *Aging as a Social Process : Work, Retirement, Economic Status and Aging*. Toronto : Butterworths-Heinemann & Co.(Canada) Led. 1983, 450.
- 61) Medley, M. L.(1976). Satisfaction with life among persons sixty five years and older. *Journal of Gerontology* 31, 448-454.
- 62) Morgan, L.(1976). A re-examination of widowhood and mora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9, 121-128.
- 63) Quick, H. E., & Moen, P.(1998). Gender, employment, and retirement quality : A life course approach to the differential experiences of men and wome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3(1), 44-64.
- 64) Quinn, W. H.(1983). Personal and family adjustment in later lif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57-73.

- 65) Streib, G. F., & Beck, R. W.(1980).
Older families? : A decade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2,
205-224.

- 66) Warr, P. V., Butcher, I. Robertson., &
Callinan, M.(2004). Older people's well-
being as a function of employment,
retirement,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and
role preference.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95, 297-324.

- 접수일 : 2008년 01월 15일
- 심사일 : 2008년 01월 18일
- 심사완료일 : 2008년 02월 25일